

만화로 보는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지식경제부는?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무역·통상과 자원·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의
일부 업무를 통합해 신설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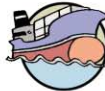
1. 신성장동력



2.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3. 해외자원개발



4. 무역, 통상 및 외국인 투자



5.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장인물〉



지경맨

지식경제부의
친절가이드.
경제희망을 찾는
달구와 보람이의
여행길 동반자.



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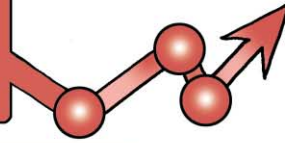
취업을 걱정하는
대학 졸업반 학생.
졸업논문 주제인
경제희망을 찾아
보람이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



보람이

달구의 여자친구.
좌절한 달구를
위로해 주고,
경제희망 여행을
제안한다.

1. 신성장동력







**짜잔~!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신성장동력
3대 분야 17개 사업!!**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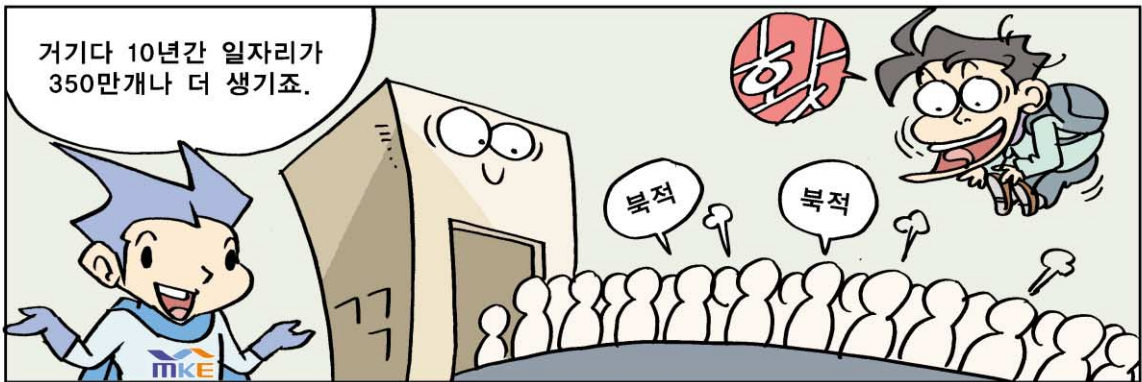
*MICE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vents(국제행사)



정부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죠. 또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설비투자를 늘려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도와가며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1950년대와 60년대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산업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장동력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90년대 IT 산업이 바로 그런 예죠. 이를 통해 우리 경제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에너지고갈 등 글로벌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5년 후, 10년 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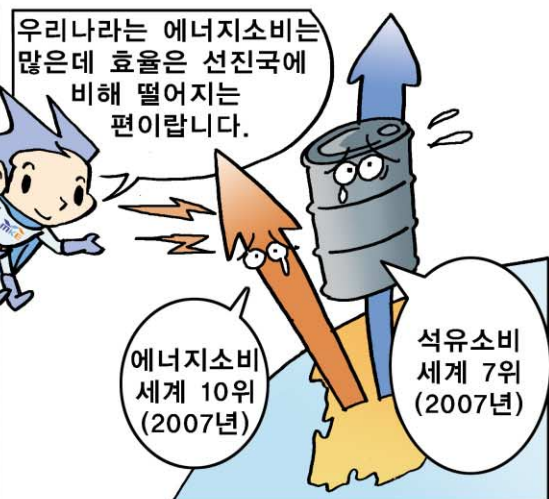
지식경제부는 17개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정부 7조원, 민간 90조원 등 총 97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2013년까지 총 3조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해 나갈 방침입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도 개선해 나갈 거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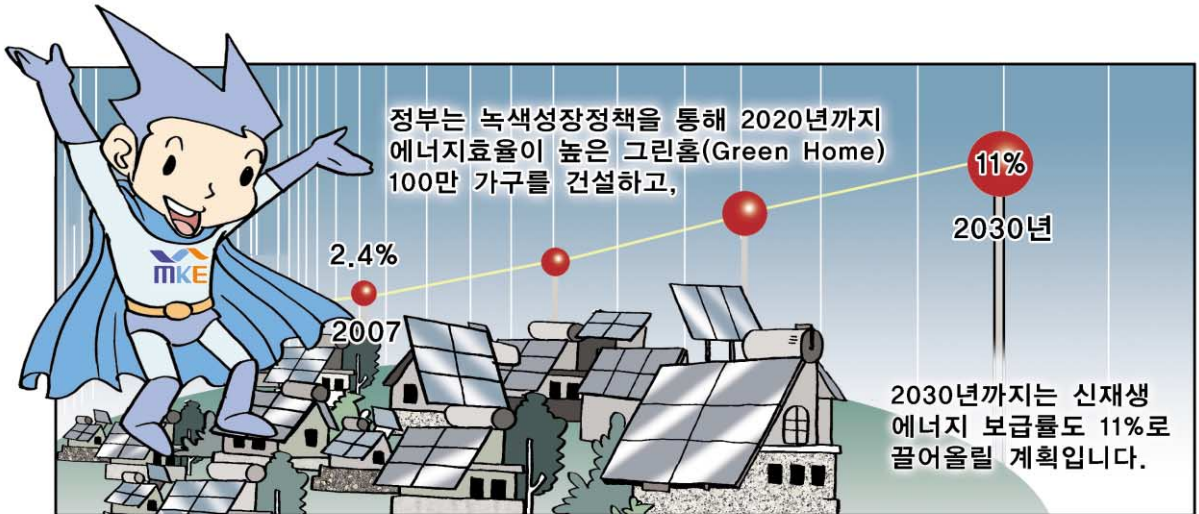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모든 나라의 경제 여건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미래를 대비해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는 반드시 한 단계 재도약할 것입니다.

- ◆ 지식경제부 산업융합정책과 ☎02)2110-5386
- ◆ 신성장동력기획단 ☎042)710-1214

2.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신재생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지식경제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오는 2012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1,600cc 이하 차량은 리터당 12.4km에서 14.5km로, 1,600cc 초과 차량은 9.6km에서 11.2km로 높이는 것이죠.

또 2009년 7월부터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7개의 전기사용 제품에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과 함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표시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탄소 저감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지요.

아울러 오는 2013년까지 전기를 많이 먹는 백열전구를 퇴출 시킬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백열전구는 2009년까지 모두 LED 조명으로 교체할 방침입니다.

둘째,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입니다.

오는 2012년부터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2022년까지 원전 4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작업도 병행할 것입니다.



셋째,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정책입니다.

태양광, 풍력, LED, 수소연료전지 등 9대 중점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에너지 연구 개발(R&D)을 위해 4개의 에너지 R&D 연구기관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 ☎02)2110-5412
- ◆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 ☎02)2110-4882
-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6
- ◆ 에너지경제연구원 ☎031)420-2114
- ◆ 한국수력원자력 ☎02)3456-2114

-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02)2110-4874
- ◆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정책팀 ☎02)2110-5427
- ◆ 에너지관리공단 ☎031)260-4114
- ◆ 한국전력공사 ☎02)3456-3114

3. 해외자원개발









해외자원개발

우리나라는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변하면 우리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지요. 유가가 10% 상승할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은 0.35%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0.23%포인트 상승합니다.

향후 석유자원의 고갈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화석연료의존에서 시급히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 영국의 석유화학업체인 BP는 현재의 탐사기술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석유 가채년수(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년수)를 42년으로 추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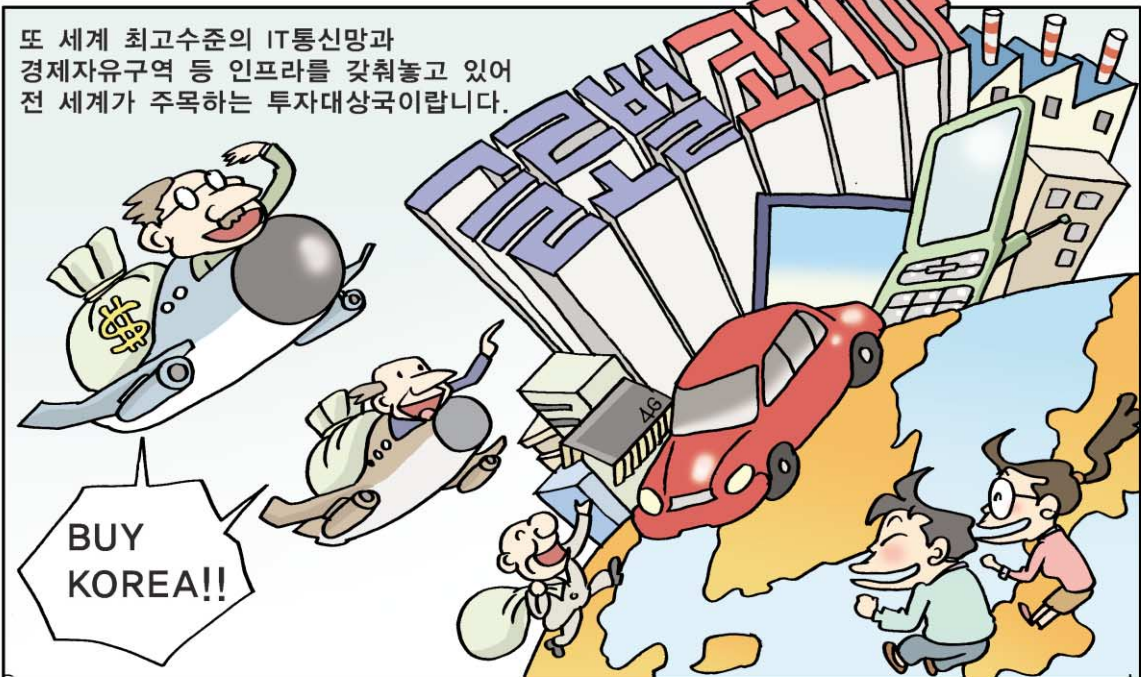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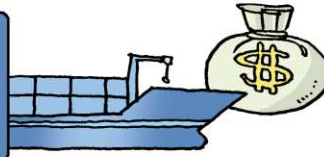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지식경제부는 세계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원 확보 외교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해외유전개발 투자는 4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요. 또 국내기업이 생산한 원유·가스의 일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7% 증가해 자주개발률 5.7%를 달성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까지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을 18.1%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4대 지역을 중점진출 전략대상으로 선정하고 적극적 자원외교를 펼쳐나가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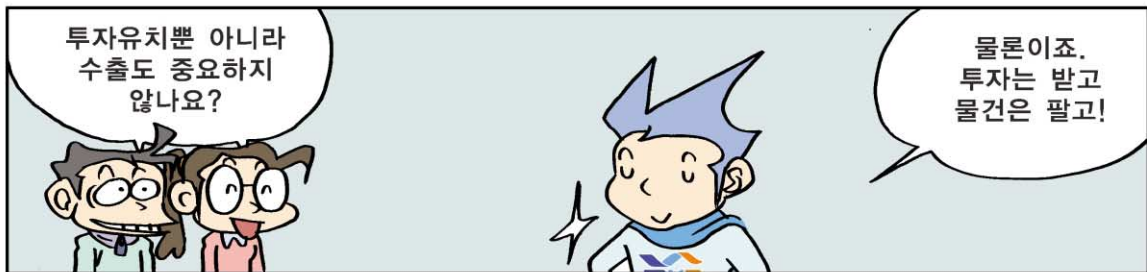


- ◆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 ☎02)2110-4907
- ◆ 지식경제부 유전개발과 ☎02)2110-5509
- ◆ 한국석유공사 ☎031)380-2114
- ◆ 한국가스공사 ☎1588-1604
- ◆ 대한석유회社 ☎02)3775-0520

4. 무역, 통상 및 외국인투자









무역, 통상 및 외국인투자

2008년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8,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11위 기록입니다. 곧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이로운 성장세지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해인 1974년부터 2007년까지의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14.3%였습니다. 이는 중국을 제외하면 주요 수출국 가운데 1위 기록이지요(중국은 연 18.1%).

주요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높아져 2007년 기준, 조선은 40.4%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11.2%로 3위, 자동차는 5.6%로 5위를 기록하고 있지요.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현재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민관 합동으로 총력수출지원단을 구성하고 수출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외국인투자 증가는 우리 경제의 건실성을 세계에 알린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는 규제개혁을 가속화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노사문화의 선진화를 꾀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역〉

- ◆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02)2110-4830
- ◆ 지식경제부 수출입과 ☎02)2110-5334
- ◆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 ☎02)2110-5325
- ◆ 한국무역협회 ☎1566-5114
- ◆ 한국수출보험공사 ☎1588-3884

〈외국인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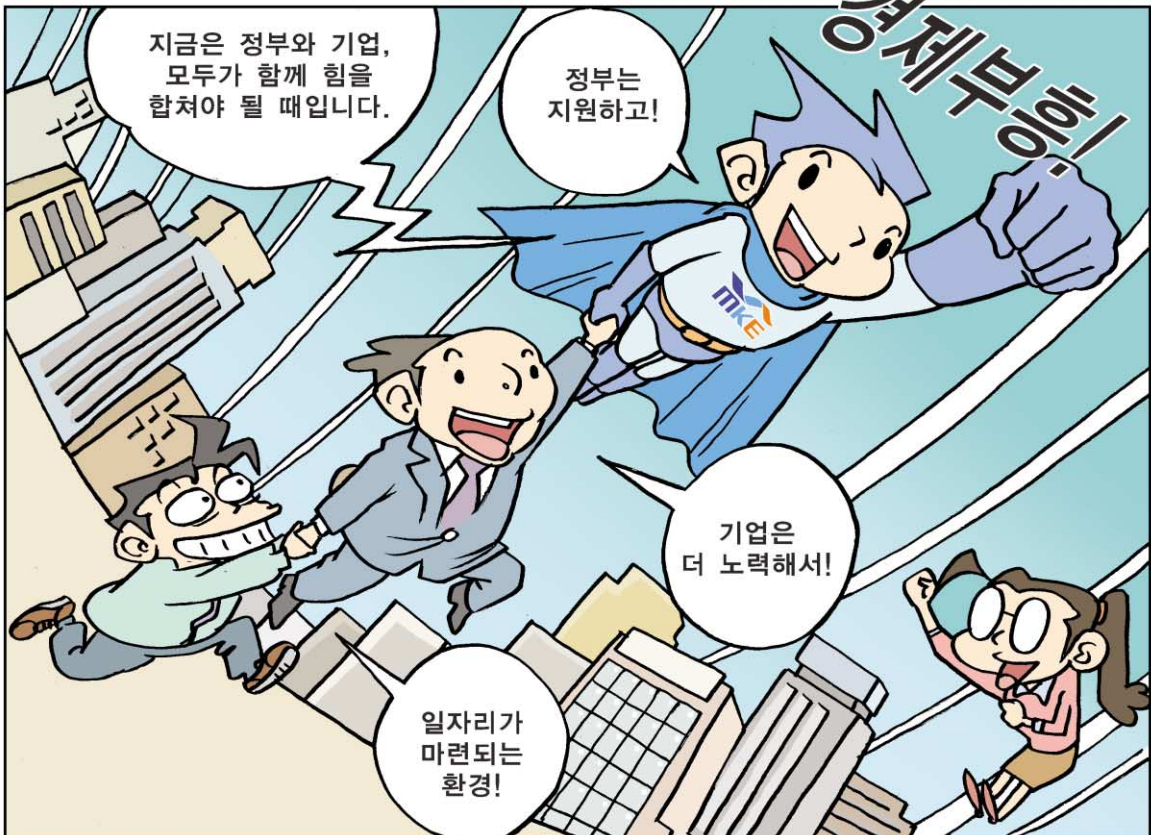
- ◆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02)2110-5356
- ◆ 지식경제부 투자유치과 ☎02)2110-5363
- ◆ 지식경제부 해외투자과 ☎02)2110-5380
- ◆ KOTRA 인베스트스코리아(IK) ☎02)3460-7545



5.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몇달 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식경제부는 2008년 12월 1일부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실물경제종합지원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민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단은 기업 애로사항 접수 시 종합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줍니다.

아울러 다양한 기업지원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는 기업도 돕고 있지요. 또 원천 기술이나 산업고도화기술 등 각종 기술개발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지식경제부 실물경제종합지원단 ☎1577-0900
- ◆ KOTRA 해외전시팀 ☎02)3460-7678
- ◆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02)769-6661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2)6009-8114



발행처 지식경제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3)

TEL : 02.2110.5027 FAX : 02.503.9627 홈페이지 : www.mke.go.kr

제작협력 :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02.6009.3300)